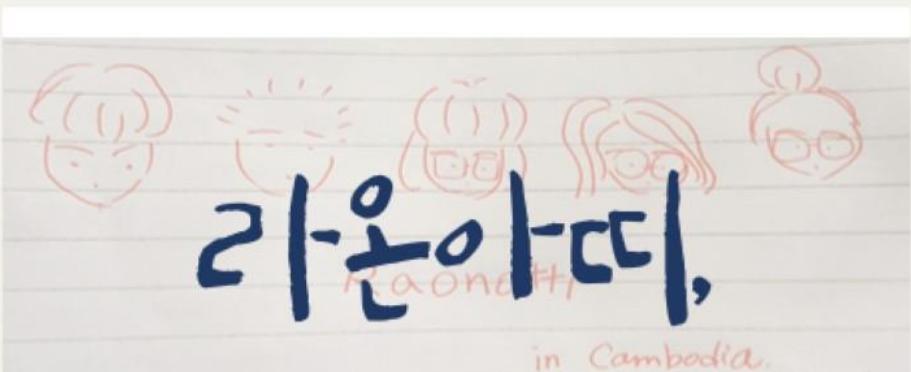


그 캄
곳 보
엔 디
서 아
의 비
는 감
날 품
대



라운아띠에게 묻다.



— 02 —

01

12월 우리의 발자국

02

12월 우리의 삶

03

우리에게 묻다



“오후 활동이 끝난 후
톡톡은 기다리며”

이

12월 우리의 발자국





12월 한 달은
YI에 집중하는 달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집중적으로 해나갔다.



첫 번째 발자국, YMCA Youth Institute



Q. 수업에서 가장 큰 고민은?

A. 과연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

어느 순간부터 남자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되었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별 대안은 없었다.

그래서 Y.I 학생들 우리 팀원들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11월은 여자, 남자, 어린 아이들이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수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



#지호의 스포츠 수업

#수업은 언제나 "재원이 형"과 함께

#이때는 뒤통수 마저 잘생겼구나(11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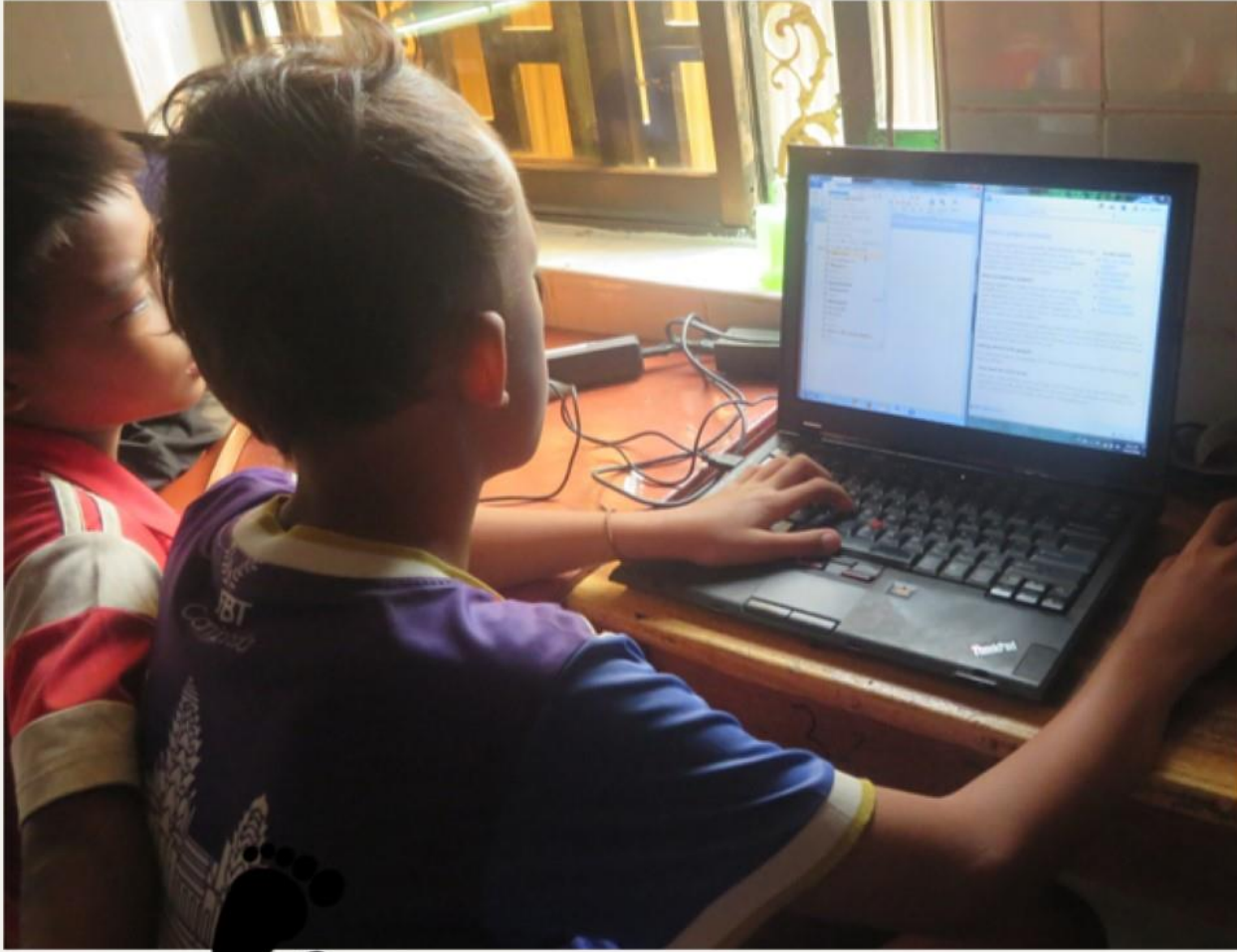
Q. 경제 수업을 하게 된 이유?

A. 어느 순간부터 YI아들은 우리만 보면 아이스크림을 파고, 먹을 것을 사먹고 싶을 때 돈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없다고 하면 때렸다. 처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사줬던 것이 아이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YI에 왔다면 자신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던 것 같다.

걱정이 되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어서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고 나서도 새로운 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사주고, 돈을 줄 텐데 커서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통해 돈을 벌면 어떡하지. 간사님 이랑 이런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한 후, 경제수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이 나왔다. 수업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노동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고, 직접 한 노동을 통해 가짜로라도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사보게 하는 것이다. 아직 시도 중이다.



- # 희진의 경제 수업
- # 첫 수업부터 성공적
- # 희진에게 지호란?(투투! 투투!)



Q. 컴퓨터 수업의 최종 목표는?

A. 아이들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컴퓨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재원의 컴퓨터 수업

컴퓨터 관리가 재원의 인기 비결?

애들이 컴퓨터 수업에 오는 이유는?(인터넷, 게임)



Q.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감? 친구들이 하지 않아도 곳곳이 우리를 따라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냈는데. 그래. 애들이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우린 성공한 거야.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한 특별 수업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



A. 현지: 처음으로, 아이들이 최대한 이곳에서 최대한 열심히 배워서 그들의 가난에서 제발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시간만큼 그들 자신을 자유롭게, 최대한 많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씩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볼 때나 작은 아이들이 공부하겠다고 오는 것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짙해지곤 한다.

- # 채운이와 현지의 영어 수확 수업
- # 드디어 A부터 Z까지 다 가르쳤다.
- #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애들은 2명뿐?

Q. 이 수업에서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건?

A. 채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와의 수업이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서로 장난치기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수업이 시작되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몇 명의 친구들은 내 팔을 잡아 당기면서 "선생님, 빨리 공부하러 가요."라고 말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하고 놀랍다.



- # 드디어 D-Day X-mas 이브
- # 2시부터 바글바글
- # 그렇게 우리는 7시반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 털털 털렸다.

Q.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난 후의 느낌은?

10

지호: 한 여름에 크리스마스라나... 덥다.

현지: 아이들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선물도 받고, 즐겁게 놀 수 있었으니 만족한다. 크리스마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즐거웠던 날이었다. 밤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재원: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잘 참여하여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에게 고맙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희진: 한국에서도 한 번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러니 참 색달랐다. 아이크 하나를 주니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댄었고,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다만, 파티나 행사를 준비할 때 선물을 나눠주는 방식,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는 방식이 이처 상의가 되지 않아 문제였던 것 같다. 아이들은 밥을 먹고 난 후에 주었던 과일을 바닥에 버리고, 밟고, 뭉개기 시작했고, 선물을 줄 때는 어린 아이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이 2개 3개씩 받아가는 경우가 생겼다. 다음 행사를 준비할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은: 한 번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본 적 없으나 처음으로 YI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냈다. 아이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무대를 만들고 자기친구들을 구경하느라 바빴다. 특히 아이들은 선물을 엄청 좋아했는데 사탕 모양으로 포장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5명의 힘이 합쳐져야 완성되는
Cooking class
애들아, 덕분에 바닥 청소
거하게 한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짱긌)



Q.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한국 음식과 그 이유는?

현지: 붕어빵! 아이들은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할 것 같다. 붕어 모양 빵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서 좋아할 것 같다.

채원: 글썄. 뭐가 좋을까. 불고기? 낫설지 않은 간장 베이스에 맛있는 소고기까지 더해지면 맛있게 먹을 것 같다. 찜을 좋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쯤은 맛있다고 여러 번 먹지 않을까.

지호: 뷔페. 아이들이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

재원: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한국 음식을 고르라고 하면 사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제대로 챙겨먹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현진: 아이들은 느끼한 것보다 맵고 짠 음식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떡볶이를 소개해 주고 싶다. 지금 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떡볶이를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다.



Q.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13

현지: 색조합에 가장 신경을 쓴다. 캐릭터에 알맞은 색깔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색깔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드는 재미도 쏠쏠하다.

재완: Repair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전부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는 큰 것이 Repair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하나의 Repair를 시행하기 전 많은 문제점들을 따지다 보니 사실상 시행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웁니다.

지호: 빨리 끝내자 우리에게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 # 아들이 왜 색칠 공부에 환장하는지 알겠다(회진)
- # 이제 가지!!!...(다들 쓱쓱 색칠에 열중)
- # 우리의 Repair 목표는 1/4까지 변화 완성하기



화진: Repair는 페인트부터 플레이그라운드 등 할 것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고, Nimey가 기획을 하면 우리는 함께 일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시간과 하는 방식들을 정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도 Repair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꾸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다. 그래서 진행이 늦어졌다.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 Repair에 집중하고 있다.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마음이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다.

채은: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 특히 다른 색들의 경계 부분은 숨을 참고라도 꼭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하는 부분이다. 색의 빈 공간이라던가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면 그건 다시 해야 하는 법. 언제부터인가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했지만 그 이유를 몰랐었다. 플라스틱 의자를 몇 개나 쌓아서 겨우 닿을 수 있었던 내 그림들. 너희 때문이었구나. 정말 다 같이 했던 말이지만 왜 애들이 색칠 공부에 그렇게 열중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한번 붓을 쥐면 활동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는다. 얼마나 집중하고 했었는지. 사진 속의 저거북이 한 마리가 보이지 모르겠다. 정말 열심히 했다. 특히 '선 따기'는!!!!!! 제일 중요했다.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특별한 수업



두 번째 발자국, YMCA Learning Center



- # 현지의 YLC에서의 음악 수업
- #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공연
- # Santa Claus coming to town~

Q. 지금까지 YLC에서의 수업을 계속
해오면서 느낀 점?

A. 개인적으로 YLC와 YI의 수업에 균형을 맞
추면서 활동을 해나가다 보니, 이 둘을 정~말
다른 곳이라는 것을 느낀다. 다르기 때문에, 다
른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배우는 점도 분명 있다.
그래서 YLC에서 했던 것들을 YI에서도 해보
기도 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
어서 좋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다! 준비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
고, 변화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한 명과 그 이유는?!

희진: 피싸이다. 10월부터 YLC에 나오기 시작한 친구인데, 처음에는 아빠의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멈춰서서 그 순간, 울기 시작하는 친구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달을 울었다. 그리고 YLC 총에 앉는 곳도 정해져 있다. 그네와 저만치 있는 쇼파. 거기서 또 운다. 워안 하 면 운다. 그러던 애가 어느 날 우리를 보고 티쳐라고 외치면서 방긋 방긋 웃 으여 우리를 바라볼 때, 나에게 안기면서 웃을 때 참 기분이 좋았다. 이제 잘 이곳에 적응한 것 같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증거 같 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도 울고, 수업에도 집중을 하나도 안 하던 친구 가 우리와 관계가 쌓이기 시작하니 조금씩 집중을 하고, 열심히 참여하려 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이뻐서. 수많은 친구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피 싸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지: 두 명은 안 되나... 그러면 수아니따를 고를 것 같다.

자세히 보면 볼 수록 귀엽고, 매력 넘친다. 물론 이 친구 뿐만 아니라, KI의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만큼... 힘들기도 하지만(한숨))

채운: 가가. 항상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불러도 못 들은 척 하 지만 자기가 기분이 좋거나 갑자기 그걸 마음이 들면 보반도 해주곤 하는 가가.

- # 월, 수: 현지, 채운 화, 목: 희진, 지호
- # 신혼여행 가신 선생님 대신 우리가
- # 3교시 지옥 시작

지호: 피싸이. 처음에 나를 볼 때 항상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볼 때 웃어준다.



Q. 두 번째 크리스마스. 아쉬운 점은?

희진: 재밌었다. 아쉬운 점은 별로 없었다. 나중에는 진행하던 게 다 어그러지고 그냥 아이들끼리 뛰어 놀기 시작했지만 그 점도 참 좋았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울다가도 2분 있으면 웃고, 뛰어다니고, 놀고, 안기고 사랑스러웠다.

재원: YLC에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내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활발하지 못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진행된 파티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아이들과 같이 춤추고 재미있게 놀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호: 아쉬운 점은 없다. 그저 더웠다.

- # 드디어 D-Day X-mas
- # 우리는 7시 반부터 파티 준비
- # 12.25 많은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현지: 준비한 게임을 거의 못했다. 아이들이 즐거운 나머지 나의 게임 도구들을 망가트려서 속상한 나머지 아이들에게 너무 차갑게 굳어 갔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미안해 애들아 ㅠㅠ

채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2번이나 해보는 처음이었다. 두 번 다 많은 아이들과 보내서 그런지 나도 덩달아 즐거웠다. 분명히 이런 경험은 다시 할 수 없겠지. 그랬기에 사진으로 많이 남겼던 것 같다. 여기서도 신기하게도 애들이 다들 신타복장을 하고 와서 너무 귀여웠다. 특히 신타를 보고 좋아하는 그 순수함?



02

12월 우리의 삶



“ 뜨개질 실을 산 후 우리의 나눔 시간은 뜨개질로 가득 차 버렸다 ”



2018.12.3~8. # 규홍 간사님 프놈펜 오신날 # 간사님, 카레가루는요???

없으시면 숙소 못 갑니다 # 간사님을 위한 저녁 # 저녁 메뉴는 지호 오빠의 탕수육 # 컨셉은 중식

간사님!!! 캄보디아 프놈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위대한 캄팀 -



2018.12.3~8. # 중간 격려 # 왜 중간 격려 있는지 알 것 같은 느낌

간사님들 덕분에 그동안 했던 고민들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귀홍 간사님 베트남으로 조심해서 가세요 # 귀홍 간사님 보내고 우리는 더 재밌게 놀기





2018.12.3~8. # 희경간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 YLC Srey Reak 선생님의 결혼식
처음 입는 드레스, 너란 녀석 너무 힘들구나 # 덕분에 배에 경련나는 줄
오늘은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2018.12.9. # 그렇게 이번 주말도 순식

소피움과 그의 여자친구 니타와 함께한 점심식사 # 처음 가본 한식당 "고기"

밤 먹고 같이 공포 영화도 보고 바이킹도 타고





프놈펜의 코스트코같은 느낌의 대형마트 MAKRO

채소가 전통시장 보다 싸다(다 못 먹어서 못 삼) # 양배추 8통에 0.8\$ 실화?

한 번을 때 일주일 식단을 짜서 식단에 맞게 식재료 구입



#다같이MAKRO갔다와오는길

#저노랑이들의뒤태가보이는가?(꾸굴) #어쩔수없어5명이다같이타려면

#처음타보는구조의푹푹자세히보이지는않지만근히넓다





크리스마스 그게 뭐지. 먹는 건가? # 우리는 열심히 애들한테 줄 선물 포장 중(약 100개)

과자 두 개, 사탕 하나, 지우개 하나, 볼펜 하나, 연필 세 자루

선물 포장은 캄보디아 프놈펜 “위대한 캄팀”으로 연락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서로에게 “쓸모 없는” 선물 하기

재원이는 채윤이한테 알로에 2개, 희진은 지호한테 마스크 팩 10개, 지호는 재원이한테 검은 티 한 장, 현지는 희진이한테 책 한 권과 크리스마스 카드, 채윤이는 현지한테 비누 하나



2018년 12월 31일 # 2018년 마지막 날

연말 기념으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 파티하는 중 # 메뉴는 콘 치즈, 치즈 스틱, 카프레제 샐러드

감사님과 시간 동안 통화 # 우리의 두 번째 저녁



03

우리에게 묻다



“ 온 적도 여러 번이지만 같이 사진한 번 찍어보지 못한 이 온물2에 스 ”



강병약(24)

- 그래서 내일 뭐 먹을까?

아파? 약 먹을까?(공식 약 재이)

특징: 지호를 우렁 "각시"로 만들 계획 중

야 빵 뜨랑(간식) 꺼내봐!

Q. 내가 만약 워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YI에 가장 해주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A. YI 친구들은 마약, 술, 담배 등 안 좋은 것에는 다 노출되어 있다. 어른들이 직접 마약을 하는 장면도 보았고, 마약을 할 때 YI의 쓰라이빠의 친구가 그걸 제조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가끔 YI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오는 것도 보았다. 나는 가끔 이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본다. 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다. 그냥 기회가 아닌 남들과 동일 선상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어떤 선택이든 그게 아이들의 선택이라면 믿고, 존중하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싶다.

간사님이 가져다 주신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귀국하면 다
시보겠다고 돌려보냈던 나였는데, 지금 여기서 편지를 쓰고 있다니... 약 3개월-4개
월이라는 기간 동안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있다니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난다.
내가 만난 아이들 때문에 그 기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다. 조금은 지쳤을
수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 균형점을 잘 잡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한국 가서
백순대 먹으러 가자.



장파괴(23)

- 내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없어

요리? 그거 쉽지~

아니 근데, 재원이 형이 진짜 섬세해

오늘은 한국 가기 D-37, D-36, D-35...

Q. 내가 만약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팀 중간 격려를 위한 간사님으로 오게 된다면 라온아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어 아띠들아~~! 타지에서 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공감이 간다. 지난 4개월 정말 수고했고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다 같이 술 한잔 하자~~

캄보디아에서의 4개월 수고했어~~!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하고 한국가자!



안블락(25)

-살 빠지는 건 안 돼.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잖아

아니다. 안 한다. 알겠다. 한다.

이제 얼굴 곧 소멸 위기. 하도 타서.

현지가, 잘 하자.

Q. 내가 만약 현지라면, 재원-오빠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는?

A. 오빠, 같은 팀이 되어서 오빠랑 저랑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 오빠는 너무 기준이 높아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봐요. 그래도 제가 가끔 짜증도 많이 내고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도 오빠와 맞추어 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빠는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만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나 잘하세요. 재원아 잘 하자.



김복치(21)

- (요리 중) 국물은 "자연 한 알"

그렇게 안 보이지만 걸어 다니는 종이인형

난 내 땀 냄새가 좋더라(콩콩)

자원아, 지호야 잘 하자.

Q. 내가 만약 자원이라면, 현지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는?

A. 모두가 지쳐있을 때,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는 현지에게 없는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고, 기꺼이 불이자~알 탈 수 있도록 '산소'가 돼 줄게! 팀원들이 지쳐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열정에 활활 불타오르곤 한다. 그러다가 나까지 타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팀원들은 나에게 항상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알까?

차라리 못한 동생에게, 친구에게 화라도 내면 좋을 법한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더 강해지라고,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TMI. 자원 오빠가 사실 이렇게 실제로 말해줬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적는 거다!

(오빠~기쁜 게 있으면 오는 거 있는 거 알죠? ^-?)

<현지가 현지어에게>

활동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나는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 중이다. 첫째, 설렘. 한국 갈 생각에 설렘. 앞으로 남은 여행이나, 일정에 너무 기대되는 게 많아서 설렌다. 한국 가서 먹을 신전 떡볶이와 (여기서도 장셰프의 신전 떡볶이를 맛봤다는 건 비밀~!) 집 근처의 칼국수, 그리고 최종 보고회 때 만나서 갈 부산이랑 양산까지.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볼 생각하니깐 설렌다. 둘째, 두려움이다. 미래가 두렵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 정해진 것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 남은 시간 허송 세팅만 보낼까 봐 걱정이야. 미래의 나에 대한 두려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할 수 있는지 두렵다. 너무 미뤄놓은 게 많아서, 잘 할 수 있겠지? 셋째, 슬픔. 벌써부터 슬픔이 느껴지다니, 오바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벌써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슬픔 때문에 가끔 우울해지곤 하는 것 같다. 물론 두려움 때문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다시는 못보고 이 시간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왜 이리 짙~한지 모르겠다. 12월에는 교장 선생님도 떠나시고, 한 명 한 명 우리의 곁을 떠나고 있다. 나로서는 잡을 수도 없으니까 더욱 먹먹해지는 것 같다. 마지막 감정은, 희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억,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희망.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희망, 기쁨 등등.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놓치고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서, 천천히 마음 속에 담으려 하고 있다.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을, 문득 본 아름다운 하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김건강(21)

- 아, 똥아려(후다닥 쿵)

우리 팀 연 컬러 "무어이 떠었(한그릇 데)"

나는 우리 팀에서 제일 건강해(으하하)

그녀의 세심한 붓 터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Q. 내가 만약 다음 기수를 만난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A.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팀원이라고 해도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라는 것.
물론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생각해
주는 건 팀원이 맞지만 그만큼 팀원을 아껴야 한다는 것. 그런
팀원들에게 내 비밀 따위 없다는 듯이 내 입바닥까지 보여주는
건 '과하다'. 굳이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그건 서로를
지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도 빠
짐 없이 활동 일지를 쓰고 있다. 오늘 하루 했던 생각, 요즘 하는 생
각, 요즘의 고민.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었다. 사
실 생각이 많다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뭔가 내가 새
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뻐했다.

<채운이가 채운이에게>

5개월이라는 시간 어땠어? 잘 지냈던 것 같아? 내가 항상 하던 말이 "한국 가고 싶다" 였는데. 정말 한국이 그리워서 그
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부모님이랑은 영상 통화로 얼굴도 보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난 왜 그 말을 계속 했을
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처럼. 약간은 동담이 섞인 한마디로. 어쩔 때는 정
말 진심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지. 하지만 역시 나는 이 5개월이나 자신을 인내하는 시간이었어. 서로
모르던 사람들과 5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들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동감해주는 시간. 그리고
그런걸 연습하는 시간. 많은 감정을 느꼈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어. 그래도 잘 지냈어. 그렇게 잘 지냈기에 활동을 마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잘 했어. 채운아. 토닥토닥

막간을 위한 사진첩



<결혼식장 비하인드 컷>



<노래이 2명>



<뜨개질방>



<위풍당당닭>









한 아
 국 지
 으 막
 로 까
 돌 지
 아 잘
 가 지
 자 내
 다
 가

